

2023년을 말라리아 재퇴치의 출발점으로!

- ‘세계 말라리아의 날’ 계기 질병관리청-국방부 공동심포지엄 개최
-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말라리아 우선퇴치 권고국가
 - * 경제협력기구 가입국 중 3개국만 포함)
- 「’27~’29년 말라리아 제로」, 2030년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위한 협력
 - * 말라리아 퇴치인증 조건 : 3년 연속 국내환자 발생 0명 달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4월 25일)’을 맞아,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질병관리청-국방부 말라리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30년까지 말라리아 재퇴치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이 ‘세계 말라리아의 날’ 관련 공식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붙임 1 참고)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매개체 감염병(vector-borne disease)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질병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84개 국가에서 약 2억 4,7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95%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World malaria report 2022, WHO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35개국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매 5년마다 말라리아 우선퇴치 권고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퇴치 권고국가(E-2025)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가입국 중에는 우리나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3개국만이 포함되어 있다.

말라리아는 한국전쟁 이후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한 <말라리아 근절 사업>을 통해 1979년 완전한 퇴치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1993년 휴전선 인근에서 말라리아가 재출현한 이후, 현재는 인천,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민간인 및 군인에서 매년 300~400명 수준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2013-2022 >

구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445	638	699	673	515	576	559	385	294	420
국내발생	385	558	628	602	436	501	485	356	274	382
해외유입	60	80	71	71	79	75	74	29	20	38

* 2022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 완전한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며, 치료 종료 후에도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휴전선 접경지역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홍보, ▲감염자 대상 복약수첩 배포 및 철저한 복약지도,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인 및 군의관 대상의 말라리아 교육도 시행, 말라리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 행정안전부, 말라리아 위험지역 지자체 관계자(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군의 전략, ▲현장 대응사례 공유, ▲퇴치를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환자 발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퇴치를 위해서는 개별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도 이날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글로벌 말라리아 프로그램(Global Malaria Programme)의 엘칸 가시모프(Elkhan Gasimov) 팀장은 영상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의 올해 「세계 말라리아의 날」 슬로건인 “말라리아 제로를 향한 시간 : 투자, 혁신, 이행(Time to deliver zero malaria : invest, innovate, implement)”에 대해 설명하며 말라리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민관군 협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말라리아 조기 퇴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7년 말라리아 제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군, 지자체, 전문가 등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설명하며, “국내 말라리아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 지역사회, 군 장병,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붙임> 1. 말라리아 공동심포지엄 일정
 2. 국내 말라리아 현황 및 특성
 3. 말라리아 카드뉴스
 4. 세계 말라리아의 날 개요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황경원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신나리 (043-719-7162)
			연구사	이소담 (043-719-7175)

질병관리청-국방부 말라리아 공동심포지엄

일시: **2023. 4. 25.(화) 13:00**
 장소: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 6층**
(서울 용산구)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국방부

12:50~13:10	참가자 등록	
	개회식	
13:10~13:30	개 회 사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환 영 사 국방부 보건복지관 김은성 축 사 세계보건기구 팀장 Elkhan Gasimov 기념촬영	
	세션 1 말라리아 퇴치사업	
13:30~13:50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추진 방향	연세세브란스병원 염준섭 교수
13:50~14:10	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전략	육군본부 박창보 중령
14:10~14:30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전략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신나리 연구관
14:30~14:50	말라리아 매개모기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방제법	매개체분석과 이희일 과장
14:50~15:00	군 말라리아 현장 대응	육군 제1예방의무근무대 주영훈 중령
15:00~15:10	지자체 말라리아 현장 대응	경기도 파주시보건소 신금화 팀장
15:10~15:20	지자체 말라리아 현장 대응	강원도 철원군보건소 이해경 팀장
15:20~15:40	Coffee break	
	세션 2 종합토론	
15:40~16:10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핵심전략	
16:10~16:20	질의 및 응답	
16:20~16:30	마무리 말씀	국군의무사령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16:30	종합정리 및 폐회	

□ **말라리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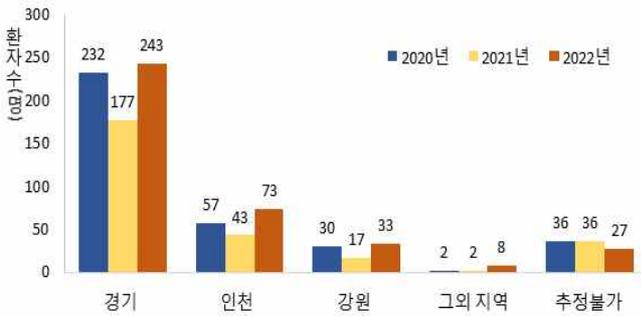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70년(15,926명) 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여 1979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선언 - 1993년 재출현 이후 2000년에 4,142명으로 정점을 보였고, 이후 말라리아 재퇴치 사업으로 최근 연간 300~400명으로 감소

<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2013-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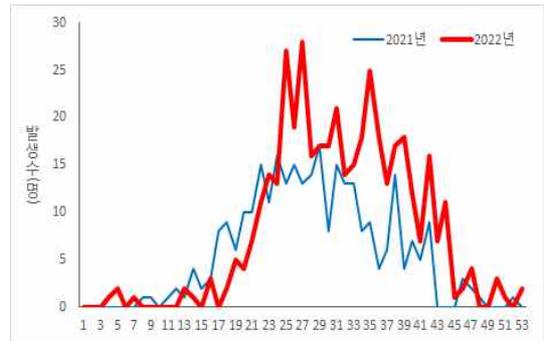
구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445	638	699	673	515	576	559	385	294	420
국내 발생	소계	385	558	628	602	436	501	485	356	382
	민간인	227	402	361	307	280	338	364	273	276
	현역군인	97	98	181	180	96	100	70	41	35
	제대군인	61	58	86	115	60	63	51	42	52
해외유입	60	80	71	71	79	75	74	29	20	38

* 2022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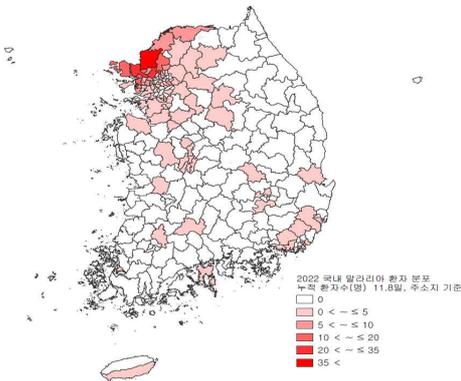
- 말라리아는 90% 이상 인천, 경기, 강원북부의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감염, 5월에서 10월 사이 집중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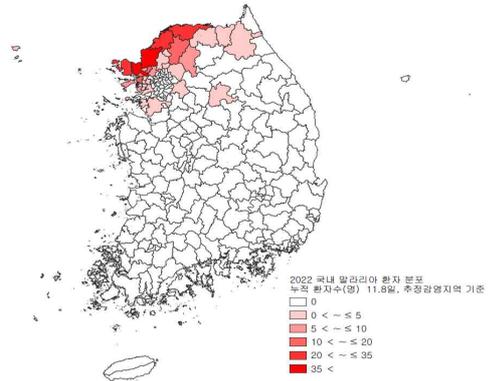
최근 3년간 추정감염지역 기준 국내발생 현황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



말라리아 발생 분포(주소지 기준)



말라리아 발생 분포(추정감염지역)

□ 국내 말라리아 특성

- (정의) 제3급 법정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만 발생**
* 삼일열 · 열대열 · 사일열 · 난형열 · 원숭이열 말라리아
- (감염경로)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속(*Anopheles*)에 속하는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며,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 중국 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 및 유충(우) >

- (잠복기) 일반적으로 7~30일이지만 면역 상태, 원충 종류 등 여러 영향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삼일열원충은 간에 잠복하여 모기에 물린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재발할 수 있음
- (임상 증상) 초기 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림, 삼일열 말라리아는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해열 등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이 특징
- (예방수칙)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 ◆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2023. 4. 25 질병관리청

알고 계세요? 매년 4월 25일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 입니다!

말라리아는, 전 세계에서 매년 무려 2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우리나라도, 매일 한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8

2023. 4. 25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그것이 알고 싶다?

- ▶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 ▶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발생 국가로 매년 300명~400명의 환자가 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연도	국내 발생	해외 유입
2017	436	79
2018	501	75
2019	485	74
2020	356	29
2021	274	20
2022	382	38

2/8

2023. 4. 25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특성은?

- ▶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4월부터 10월 사이, 일출 직후부터 일몰 직전까지 사람에게 접근해 피를 빨아들입니다.
- ▶ 매개모기는 벽면과 45도 각도로 앉아있으며 비행 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 매개모기는 눈과 수플, 숨지 등 물이 고인 웅덩이에 주로 서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 중국 얼룩날개모기 유충

3/8

2023. 4. 25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주요 위험지역은 어디일까요?

- ▶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휴전선 인근지역인 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구분

- 고위험 지역
- 중위험 지역
- 저위험 지역
- 잠재적 위험지역

4/8

2023. 4. 25 질병관리청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요?

- ▶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나타나고,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 매개모기에 물린 뒤 짧게는 7일, 길게는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8시간 간격으로 반복

- 오한
- 발열
- 발한
- 두통
- 설사
- 구토

5/8

2023. 4. 25 질병관리청

진료 및 검사방법, 알려주세요!

- ▶ 말라리아는 신속진단키트 등으로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트 검사 현미경 검사 PCR

6/8

2023. 4. 25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 ▶ 말라리아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짐없이 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말라리아 원충은 혈액과 간에 존재하게 되며,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클로로퀸 3일 프리아퀸 14일

7/8

2023. 4. 25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예방수칙

지키고! 알리고! 기억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 1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출 직후~일몰 직전)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 2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3~4시간 간격) 뿌려주세요!
- 3 실내에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해 주세요!
- 4 집 주변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가 있는지 살피고, 고인 물을 꼭 제거해 주세요!
- 5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등으로 방문하신 다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8/8

□ 목적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지정하여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과 참여 유도
 - * 2007년 WHO에서 말라리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선언,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말라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촉구

□ 주요 내용

- (슬로건) 「Time to deliver zero malaria: invest, innovate, implement」
- (현황) 2021년에는 세계 84개국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였고, 약 2억 4,700만명의 신규 환자 발생, 약 619천명이 사망
 - * 아프리카는 전체 발생의 95%, 전체 사망자의 96%를 차지하며, 사망자의 약 80%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아동이 차지
- (내용) “말라리아 제로를 향한 시간 : 투자, 혁신, 이행”이라는 주제로 소외된 인구에게 이용 가능한 도구와 전략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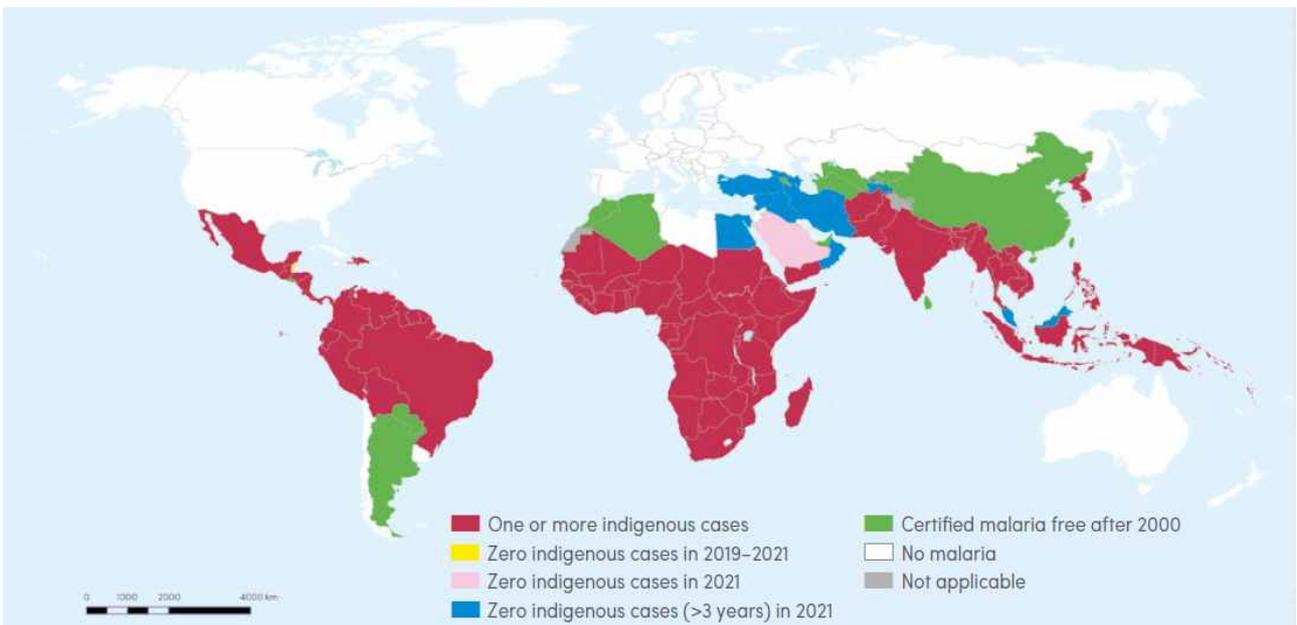


그림. 2000년 이후 말라리아 발생 국가 중 최근 3년간 퇴치 현황(출처 : World Malaria Report, 2022)